

30일 단기출가  
조계사 동자승



## 천진한 모습 그대로 천진불

집에선 어리광부리지만  
절 오면 의젓하게 합장  
16일 연등축제서 '인기'  
미래불교 희망 보는듯



◇인사동에서 예쁜 연등을 나눠주며 포교에 나서고 있는 동자승들. 동심 불심의 모습 자체가 환희심을 일으킨다.

"자, 먹기 전에 뭐 할까요?"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목이 터져라 다시 시작하기를 여러번. 공양계가 이제 들림 노래처럼 들림 지경이다. 한편으로는 부축해서 두 번 세 번 경경하듯 공양계를 외치고 나서 맛있게 먹는 꼬마스님들. 30일 동안 스님아닌 스님이 된 조계사 동자승들이다. 조계사 어린이회에서 뽑힌 4~7살의 7명 어린이들이 4월 29일 식발식을 갖고 30일 단기출가의 길에 들었다. 조계사는 해마다 부처님오신날을 즈음해 아기스님들을 모신다. 파르르니 맑은 머리가 앙증맞고 장삼과 가사에 108염주까지 늘어뜨린 동자승들은 연등축제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에서 '미스코트'로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다.

모습 자체가 이색적이고 귀엽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동자승이 눈길을 모으는 걸까. 동심을 간직하고 있는 동자승은 천진불(天真佛) 그 자체다. 있는 그대로의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마음. 어린 아이였을 때는 가지고 있었지만 점차 어른이 되어가며 잃어버리기 쉬운 본모습, 거짓과 위선과 꾸밈이 없는 본래의 청정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4살짜기 남정·양정 스님, 5살 청인스님, 7살이 된 선지·석향·봉선·상상 스님 등 7명은 한달동안 절과 집을 오가며 사시예불을 모시고 각종 봉축행사에 등장하고 있다. 4월30일부터 5월7일까지는 절에서 생활하며 스님들의 생활방식을 몸소 겪었다. 집에 가는 날에는 엄마한테 어리광을 부리며 떨어지려고 하지 않지만 절에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활빈 의젓하게 행동하고 합장인사도 골달 한다. 5월2일에는 풀린 눈을 비비며 새벽예불에 참석해 진짜 스님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 것도 느껴(?)보았다. 특별히 일정이 잡힌 날은 일정에 따라 행사에 참석하고 그렇지 않은 날은 경복궁, 서울랜드 등에 가서 마음껏 뛰어놀며 동자승 모습 자체로 불교를 알리고 있다. 5일 어린이날엔 봉은사에서 열린 그림그리기 대회에도 참석했고 인사동 거리축제가 열린 9일과 14일엔 인사동에서 예쁜 컵연등을 일반시민들과 외국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가는 곳마다 탄성을 자아내게 하고 환희심을 일으키는 동자승들의 모습은 sbc와 KBS-TV에서 촬영. sbc에서는 이미 5일 특

집으로 방영했고 KBS는 6월초에 방영할 계획이다. 16일에는 동대문운동장과 종로거리에서 열린 연등축제에 참석해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수없이 사진 모델도 되었다. 17일과 20일 또다시 인사동에 나가 연등과 합장주 등을 나눠주며 포교를 할 계획이다. 19일엔 영등포 고도소를 방문하고 21일 조계사 봉축전야제에도 그 모습을 드러낸다.

동자승들을 담당하고 있는 조계사 사회국장 본오스님은 "동자승들을 보면 불교를 모르는 일반인들도 관심을 보이며 환희심을 일으킨다"며 "우리 스님들은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반성을 하게 된다"고 말한다. 조계사는 내년엔 이번보다 훨씬 많은 30명의 어린이들을 출가시킬 계획을 잡고 있다.

이산 해연스님의 <발원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일에 불안하고 정정방방 닦고 닦아 서리같이 엄한 계를 탈골된 말하리까..." 순수하고 천진스런 마음을 고스란히 지니고 출가한 동자승들의 공덕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 아닐까.

글=김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경전속의 동자**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첫 번째 동자승은 바로 석가모니부처님의 아들인 라훌라. 비록 어린 나이에 출가했지만 부처님 10대제자에 들 만큼 계명이 컸다.

불경에는 동자들이 많이 나온다. <화엄경> 입법계품의 선재동자, <지타카>의 실산동자, <금색동자인연경>의 금색동자와 묘상동자, <불설광명동자인연경>의 광명동자 등으로 그중 출가하기까지 이어진 동자는 금색동자 광명동자이다. <금색동자인연경>은 부처님입멸후 아난존자가 교화한 어느 상인의 아들 금색동자의 출생과 출가에 이르는 전기와 그의 과거에 있었던 인연에 대해 설하고 있다. 아사세 왕의 신하 용려의 시기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금색동자는 아난존자에 의해 구원을 받고 출가의 길을 간다는 내용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선재동자는 각계 각층의 53 선지식을 찾아 뵈는 나중에 보현보살을 만나서 10대왕(大願)을 듣고 이미 타불 국토에 왕생하여 입법계의 지관(志願)을 채운 구도자이다.



20세기 빛낸 고승  
기념메달로 나투스다  
조계공사-현대불교 제작 보급

근세 100년 우리 민족과 불교계를 이끌어온 위대한 큰스님들이 기념메달의 모습으로 다시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한국조계공사와 각 문도회의 후원으로 1900년대를 마감하는 올해 1999년, 근세 100년을 정리하고 기념하는 뜻깊은 문화포교사업으로 "근세100년 고승 기념메달"을 제작합니다.

역사는 인물에 의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잘 알기에, 국민들의 정신적 귀의처가 되고 나라의 운명을 이끌었던 근세 큰스님들을 통해 우리 문화포교사업의 의미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포교에도 큰 성과를 기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삼보의 하나인 스님들의 영적이 담긴 기념메달로써 사찰이나 가정용 거룩하게 장엄하며 늘 가까이 접할 수 있다면 생활 불교실현에도 역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승 기념메달 보급 안내**

◇제작: 한국조계공사가 직접 디자인 조각하며, 조계공사가 보증하고 영구히 보존하는 메달입니다.  
◇출시 일정: △5월-17일 용성·청달스님, 24일 만공스님, 31일 상형스님 △6월-7일 고암스님, 14일 한암스님, 21일 만해스님, 28일 경봉스님 △7월-5일 효봉스님  
◇가격: 메달 1개당 5만원이며 수익금은 큰스님 을 기리는 기념사업기금으로 활용됩니다.  
◇구입 문의: 현대불교신문  
전화 (02)737-8881, 722-4162  
◇은행계좌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006-01-0783-279  
농협 053-01-236063



◇16일 동대문운동장에서 개최된 연등축제에서의 동자승들. 수없이 사진 모델이 되었다.



◇어린 나이에 백막한 일정을 소화하느라 피곤에 지쳐 들쭉주는 어린 스님 품에서 깜짝 졸음에 빠졌다.



◇앙증맞고 귀여운 동승의 모습을 외국인들에게도 찬탄과 관심의 대상이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 사찰등(燈) 장엄불사 -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연꽃잎 제조 특허 연등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천년의 정려불사!

■천덕연등 장엄사찰  
조계사(서울) 용주사(화성군) 금산사(김제) 선봉사(광주) 동화사(광주) 깃바위(광주) 약천사(제주) 봉선사(남양주) 온주사(화성군) 그외다수

T자형 전선 제작, 판매합니다

연등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대폭 인하 납품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등규격(지름): 6.5cm, 8.5cm, 10.5cm, 13cm, 17cm, 30cm(대등), 실크등, 공단등

■법당 1년등 설치 전문업체  
T자형 케이블 전선 생산, 반영구적 보전, 고정형 설치, 분리형 설치  
·원하시는 사찰에는 견본등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장엄등을 설치할 사찰은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여 등개수 및 설치위치를 조언하여 드립니다.

연등

※ 각종 연등도 주문제작합니다.  
※ 천불전 조성합니다.

전화 (0347)702-0286, 794-8653 / FAX (0347)702-0288 경기도 하남시 훈궁동 180-1 천덕 연등제작사 대표 김기찬 합장